

조계종 포교정책 연찬회 '불교 영상포교...'

대중매체 활용에 포교 사활 걸렸다



“현대 종교의 발전 여부는 포교에 있고, 현대사회에서 포교는 대중매체인 방송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재일 사단법인 보리 이사장 겸 보리방송모니터회장은 3월 28일 열린 불기 2550년 제1차 포교정책연찬회 '불교 영상포교의 현실과 전망'에서 영상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일 이사장은 '방송에 비친 불교와 방송을 통한 포교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서는 재정지원과 감독만 하고 전문인을 대표로 영입해야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방송작가 윤정광씨는 "불교계에서 더 많은 기획자, 프로듀서, 감독, 작가들에게 아이디어와 자료, 편의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베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찬회에서 우봉규 극작가는 '한국영화 속의 불교, 그 미래와 방향 사이' 주제발표를 통해 "잘 된 시나리오 잘 만든 영화 한편은 수 만 명의 부누나 존자를 양성한다"는 인식의

프로그램 제작 · 공모 사업 필요
방송계에 불교 제대로 알려야
시나리오작가 연수원 만들자

으로 △불교 관련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불교 소재 드라마 극본 및 교양물 기획안 공모사업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시청자나 시민단체가 직접 제작하거나 참여해 만든 프로그램) 제작 참여 △종단 산하 독립제작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간접 참여 방안으로는 △불교 미디어센터 설립 △불교 관련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세미나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송인 워크숍 등을 꼽았다.

특히 불교미디어센터 설립과 관련된 김 이사장은 "사부대중을 위한 미디어교육, 전문 모니터 양성, 예곡과 편파 감시 등 '포교-미디어'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미디어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종단에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나리오작가 연수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우봉규씨는 또 "조계사 안국동에 불교 극장과 극단이 있어 1년 365일을 끊임없이 연극을 올릴 수 있는 '종립 극단 창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봉규씨는 이 외에도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드러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계사같은 도심사찰내에 사랑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지침서인 일종의 '불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경내지 500m안 '음식점' NO!

문광부 전사법시행령 개정안 공고... 보존지역범위 등 규정

앞으로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개정·공표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일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홈페이지(www.mct.go.kr)를 통해 공고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조계종 총무원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 왔었다. 이번에 공고된 시행령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지역 범위 △역사문화보존구역내 사전심의 대상 사업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

시행령은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해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수행환경을 해치는 시

설이 들어설 수 없게 했다. 또 도로와 철도 건설, 건물의 건축 또는 신축, 토지 형질변경,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업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 등은 사전심의 대상 사업으로 지정돼 반드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영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총 9인 위원회로 구성되며 과반수는 반드시 불교문화·전통사찰 등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사찰 또는 사찰의 주지를 포함한 5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불교계의 영향력이 강화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주무실 관계자는 "불

교계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수행환경보존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불교계가 노력해온 성과임을 분명히 했다. 시행령은 앞으로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4월 12일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등의 심의를 통해 6월 전후 공포될 전망이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총무원이 주도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실제 시행령이 건교부나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규제개혁위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4월 5일 예정된 공청회 등에서 불교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올 부처님오신날 사면 없다

조계종 호법부장 도진스님 밝혀, '열린 호법행정' 의지 과력

조계종이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행하려 했던 사면정례회가 올해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근 제170회 중앙총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은 호법부장 도진 스님은 3월 29일 불교계 기자들과 만나 "중정스님의 권한인 사면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회의 동의를 위한 사안"이라며 "올해는 심사 접수자 중 적정한 수준의 대상자를 찾기 어려웠고, 시일이 촉박해 중회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올해 첫 정기 사면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방침에 따라 이후에도 정례회의 사면·경감·복권 정례회는 착실히 준비해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990년 이후 정례회를 받은 스님 중 사면대상자는 150여명. 이 가운데 10여명 사면을 신청했지만 사면 기

준에 충족하는 스님은 단 1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2월 21일 '징계사·사면·경감·복권의 정례회 시행 총칙'을 공고하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시행될 사면 대상자 신청을 접수 받았다.

도진 스님은 "열린 호법행정과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모든 업무처리의 기본으로 삼겠다"며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총무원칙에 따라 호법부는 상처를 무조건 도려내는 것을 능사로 삼지 않고, 덕(德)으로써 잘 처리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달라진 호법부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용수 기자

CBS 경인방송인수 반대

종단협 성명 발표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해 27개 불교 종단의 협의체인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스님, 이하 종단협)가 기독교방송(CBS)의 경인민방 진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종단협은 3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공정한 선정 방침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방송인 기독교방송에 사업권을 허가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될 종교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방송위원회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종단협은 "기존 종교방송들은 이미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독자적인 선교와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며 "공공재라 할 수 있는 공중파 TV 민영방송까지 종교방송 단체가 운영하려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마저 얻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

"방장 후보 사퇴할 적 없다"
통도사 초우 스님 성명

통도사 방장 추대를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우 스님이 3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후보를 사퇴할 의향이 있으면 방장 후보로 추천한 총림대중에게 사퇴사실을 먼저 알렸을 것"이라며 "영축총림방장 후보 사퇴 보도는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왜곡·조작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영축총림비상대책위는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4월 24일 산중총회에서 초우 스님의 거취와 차기 방장 후보 추대를 위한 대중공의를 토로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원불교도 군종장교 파견

국방부 심사위서 결정, 군내 신자 535명

원불교도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군종장교의 정원과 배치 등의 문제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월 24일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종교의 기준을 국민 전체 신자수 0.2%(약 8만명) 이상, 군내 신자수 0.1%(약 500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기준으로 군내 신자가 535명인 원불교가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종교의 기준이 군내 신자 2만명 이상이었으나 이같은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원불교,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등에서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원불교가 군종장교를 파

견하는데 있어 군내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종장교는 개신교 273명, 불교 141명, 천주교 79명 등 493명이며 이를 군내 종교인수로 나누어보면 군종장교 1명당 평균 1300명의 장병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원불교가 군종장교를 파견한다 해도 1명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군종장교 4명 임관, 논란이 될 수 있는 배치를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관계자는 "군종장교 선발 인원이나 배치 등은 군내 신자수를 고려하고 있어 원불교도 군내 신자의 기준에 따라 군종장교 정원을 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3월27일자로 취임한 김명근 문화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영접해 환담을 나눴다. 오른쪽부터 지관 스님, 김명근 장관, 김장실 총무원장.

"독도에 암자 세우자"

지관 스님, 김명근 장관에 제안... "훌륭한 아이디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3월 29일 신임 김명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군종장교 선발 인원이나 배치 등은 군내 신자수를 고려하고 있어 원불교도 군내 신자의 기준에 따라 군종장교 정원을 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기대를 받은 지관 스님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배석한 김장실 총무원장은 "독도문제는 외교적 사안이지만 문화재청 등 정부 내 수많은 부처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기대를 받은 지관 스님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배석한 김장실 총무원장은 "독도문제는 외교적 사안이지만 문화재청 등 정부 내 수많은 부처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기대를 받은 지관 스님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배석한 김장실 총무원장은 "독도문제는 외교적 사안이지만 문화재청 등 정부 내 수많은 부처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을 나타냈고, 배석한 김장실 총무원장은 "독도문제는 외교적 사안이지만 문화재청 등 정부 내 수많은 부처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기대를 받은 지관 스님은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배석한 김장실 총무원장은 "독도문제는 외교적 사안이지만 문화재청 등 정부 내 수많은 부처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계종, 北에 휠체어 360대 전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3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360대를 전달했다. 시가 1억원 상당의 휠체어 360대는 총 6000여명 원의 모금과 휠체어 제작업체(주)대성(대표 김현준)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이 휠체어들은 4월 5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다.

글·사진=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송광사 삼월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원화하게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병행하고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회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해가 귀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1. 일 시 : 불기 2550(2006)년 4월 23일(음 3. 26) ~ 24일(음 3. 27) 2일간

4월 23일	4월 24일
◇오후 3시 : 보살계 입재식	◇새벽 3시 : 새벽예불
◇오후 7시 : 보살계 법문	◇새벽 4시 : 보살계 법문
◇오후 8시 : 전국 불일회 및 21교구 신도회 총회	◇오전 7시 : 보살계 법문
◇오후 10시 : 철야정진	◇오전 9시 : 보살계 수계식 및 법성도 요장 의식
	◇오전 11시 : 보조국사 종재
	◇오전 11시 30분 : 영가천도재

2. 동참방법 : 삼월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송광사 종무소 061)755-0107 ~ 9 / FAX 061)755-0408
3. 동 참 금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보살계·영가천도 동참금 계좌번호 : 501676-01-001623 우체국 (예금주 : 송광사)
615107-51-019966 농협 (예금주 : 송광사)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